

헤겔철학입문 『정신현상학』 읽기

제3강

자기의식과 인륜적 세계

강사: 김상봉

◆ 자기의식의 실현

▲ 자기자신에 의한 이성적인 자기의식의 실현

관찰하는 이성

이론적 이성 theorethical reason을 의미한다. theory는 그리스어 ‘보다’에서 파생됨.

⇒자기와 자연적 세계의 동일성을 관찰을 통해 확인하려는 것.

나와 세계 사이의 근원적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해보자.

일단 주어진 통일 속에서 다시 내적인 분열이 생김. 다시 일치를 향해서 운동을 해나간다.

주체=자연이 바로 나이고 다시 고양된 주체성 안에서 분열이 일어남.

물리적인 의미의 자연이라는 것은 주체의 입장에서 볼 때 더 이상 자립성을 갖지 않음.

이제 내가 자연과 분열하지 않고 내가 나 자신과 분열하게 됨

⇒나의 자기실현, 자기 속에서 자기 복귀를 추구

어떻게 해야 나 자신과 궁극적인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임.

자기 자신의 의한 자기의 실현. 자기는 곧 자기의식이다.

자기가 이론이성이 아니라 실천이성의 경우엔 자기가 자기를 실현하는 것이 과제이다.

자연 세계는 주체에게 실제적으로 대립하는 타자가 아니다→정신의 외화에 지나지 않음.

“자기의식은 사물을 곧 자기로 간주하며 반대로 자기를 사물로 간주하게 되었으니(→자기와 사물 사이의 근원적 불일치가 지양되었다는 뜻. 그러나 무차별적인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물과 나 사이에 본질적인 이행이 가능해졌다는 의미.)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기의식이 즉자적으로 대상적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는 자기의식에게 대자적으로 깨우쳐져 있음을 뜻한다.”(p.436)

즉자적으로는 나=자연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진리이다.

정신현상학에서는 항상 두 개의 관점이 함께 나타난다.

관점1→ 자연적 의식의 관점

관점2→ 철학자인 우리의 관점

⇒즉자적으로 참인 것을 정신의 역사 속에서 대자적으로 깨우쳐 가는 과정이 정신현상학의 의식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즉자적→그 자체로서 in itself, an sich

대자적→자기에 대해서 for itself, fur sich

“여기서 자기의식은 더 이상 자신을 전폭적인 의미의 실재로 여기는 그러한 직접적인 확신 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그것이 일체의 직접적이며 비매개적인 것을 지양된 형식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또한 바로 그 직접적인 것의 대상성은 한낱 표면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p.436)

⇒나와 사물의 동일성이란 나와 책상, 나와 형광등이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대의 원시적인 애니미즘에선 가능하다.) 사물이라는 것은 대상의 외피, 그 자체의 표면일 뿐이고, 진정한 대상, 즉 물질적 자연의 근거에 놓인 본질이 곧 나라는 이야기임. 그 자기가 곧 자기의식이다.

→ 모든 본질은 현상의 부정태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양된 형태이다.

주체는 자연인식/자연과학을 통해서 사물이 전적으로 타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념적인 것, 관념적인 것, 합법칙적인 것임을 깨닫는다.

“그런데 이제 이 표면적인 것의 내면과 본질을 이루는 것이 다른 아닌 자기의식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식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대상은 오직 자기의식일 뿐인 것이다.”(p.436)

⇒ 사물의 물질적인 본질이 곧 자기의식이다.

◎ 칸트 이후에 자연과 주체의 동일성을 확립하는 전형적인 방식

나(정신) ⇔ 자연(사물)

나와 자연은 현상적으로 달라 보이지만 물질은 자기를 이념화하고 정신은 자기를 실체화하게 됨.

자연이 기계적/역학적인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자연의 법칙 → 수학의 법칙 → 논리적 법칙 → 자기의식으로 환원됨.

◆ 민족과 인륜적 세계

“물론 대상은 물성의 형식을 띠는 점에서 이것이 자립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자기의 식으로서의 이러한 자립적 대상이 결코 그 자신에게 소원한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한 확신을 지니게 됨으로써 결국 여기서 자기의식은 그 스스로가 대상에 의해서 즉자적으로 인정되고 있음을 깨우치는 셈이다. 이 때의 자기의식이 곧 정신이기도 하거니와 이 정신은 자기가 지녔던 자기의식의 이중화와 또한 이 이중화된 두 개의 자기의식이 지니는 자립성 속에서(~, *in der Verdopplung seines Selbstbewußtseins und in der Selbständigkeit beider*~)그 스스로가 다른 아닌 자기 자신과 통일을 이루고 있다는 데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다.”(p.436)

정신은 필연적으로 자기가 이중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타자적인 자기의식 타자적인 주체 속에서 자기를 확인하고 거꾸로 자기가 타자적인 주체 속에서 확인되어, 상호 인정된다.

개별적인 정신이 보편적인 정신 속에서 지양됨⇒민족, 인륜적 세계

- 1) 나와 사물적 대상 사이의 거리를 지양하는 운동
- 2) 자기의 개별성을 인륜성, 혹은 민족 정신 속에서 지양하는 과정

“그러나 이러한 상태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반적 단계가 어떠한지라는 것은 지금까지 거쳐온 길에 견주어보아서도 그 일반적 양상은 이미 잘 드러날 것이다. 즉 앞에서는 관찰하는 이성이 범주의 요소 속에서 의식의 운동으로서의 감각적 확신과 지각 및 오성의 단계를 반복해 나갔듯이 이 관찰하는 이성은 여기서도 또한 자기의식의 이중운동을 다시 한번 거처나감으로써 자립성의 단계에서 바로 그 자기의식의 자유의 영역으로 이행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우선 이와 같은 활동적 이성은 그 자신을 단순한 개체로 의식함으로써 바로 그와 같은 개체적 입장에서 자신의 현실성을 타자 속에서 요구하며 또 이를 산출해 내야만 하지만 그러나 이런 연후에는 이 개체의 의식이 일반성으로 고양되는 가운데 모름지기 이 의식은 일반적 이성으로 됨으로써 동시에 즉자대자적인 면에서 이미 인정받는 위치에 있는 이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와 같이 인정된 위치에 있는 이성으로서의 개체적 의식은 그 자신의 순수의식 속에서 모든 자기의식을 통합하기에 이른다.”(p.437)

- 1) 개별자로서의 주체가 자기를 의식한다는 의미

자기 외의 모든 인륜적 세계를 타자성 속으로 떠미는 것.

나와 타인들 일반의 대립 속에 들어감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 자기에게 사회를 동화시키려는 욕구

- 2) 보편 이성으로서의 자기로 자기를 인식하는 단계

⇒주체가 개별성의 굴레를 넘어서 자기 속에서 보편성을 지탱하려고 할 때 도덕적 의식이 출현하게 된다.

예) 무인도에 고립되어 있는 로빈슨 크루소에게는 도덕이 필요 없다. 오직 사회 안에서만 의미가 있음.

그러나 나만이 보편의 주인은 아니다.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보편성의 효력과 정당성을 가짐

→여전히 대립이 남아 있다.

나(개별자)의 자기의식 속에서 모든 사람의 자기의식을 통합하기에 이른다.

“이제 우리가 만약 이성적인 자기의식의 실현이라는 개념으로서 우리 앞에 등장하게 된 이상과 같은 목표를 실제적인 것으로 취급한다거나 혹은 아직도 이상과 같이 내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정신을 이미 그 현존재적 단계로까지 열리게 된 실체로서 드러내놓는다고 할 때 모름지기 이 개념 속에서는 사회적 질서로서의 인륜적 세계가 펼쳐지기에 이른다.”

(p.437~438)

왜냐하면 인륜이란 오직 개체의 독자적인 현실 속에 뿌리를 내린 가운데 다름 아닌 그 개체의 본질이 절대적인 정신적 통일을 이룬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모든 자기의식이 통합되는 하나의 자기의식

→현실적 실체이자 실재인 인륜성

“이와 같이 보편성이 추상화된 결과로서 나타나는 인륜적 실체라는 뜻에서 본다면 모름지기 이 인륜적 실체란 다만 사유된 법칙이면서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자기의식, 다시 말하면 습속과도 같은 것이다.

인륜성⇒관습, 습속sitte, 미풍양속

이와 반대로 개별자의 의식은 다만 ‘이것’으로 존재하는 일자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 의식은 자기의 개별성 속에 깃들인 보편적 의식이 바로 그 자신의 존재임을 자각하거나와 자기의 행위와 현존재가 일반적인 풍속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다.”(p.438)

헤겔의 체계에서는 한낱 개별자인 개인이 모든 자기의식의 총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타자적인 자기의식이 나와 마주서고 대립하게 됨,

보편적인 자기의식을 담지할 수 있는 보다 상위의 정신의 단계가 요구됨.

⇒인륜성, 민족

개별자⇒ 보편 이성 ⇒ 인륜성, 민족

개별자는 인륜적 세계에서 지탱될 때만 보편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